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황정윤 연구원, 광주광역시 표창... 광주 에너지 산업 발전 공로

- 에너지 정책·전략 기획부터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 구축까지 폭넓은 현장 중심 활동 펼쳐
- "광주 에너지 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



▲ 광주 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산학연관 협력 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광역시 표창을 받은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황정윤 연구원(오른쪽)이 관계자 및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에너지밸리기술원 황정윤 연구원이 광주 지역 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협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2월 18일(목) 광주광역시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황 연구원은 ▲에너지 산업 정책 및 전략 기획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 구축 ▲에너지 행사 기획·운영 ▲유망 에너지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등 폭넓은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광주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왔다.

에너지밸리기술원은 매년 변화하는 에너지 산업 환경과 정책·산업 수요를 반영해 주제별 에너지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분산에너지 ▲배터리 ▲수소 ▲RE100 산업단지 등 4개 분과를 운영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에너지 산업의 방향을 논의하고 기획보고서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산학연관 주체들이 폭넓게 교류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에너지산업 기술교류회를 비롯해 전문가 세미나, 자문회의 등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해 왔다.

상반기에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교류회 'G.E.T. & Re:Born'을 통해 투자자 초청 IR 발표와 현장 중심 네트워킹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연구자의 기술사업화와 창업 연계를 목표로 한 '빛.나.다.' 기술교류회를 개최해 연구자-기업 간 후속 협력 요청이 이어지는 등 실질적인 연계 성과를 창출했다.

이 밖에도 ▲광주 미래산업 EXPO 전기차 배터리 콘퍼런스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KEET) 'G-에너지 온콜(G-Energy OnCall)' 릴레이 특강 ▲BIXPO 연계 RE100 산업단지 활성화 콘퍼런스 ▲지원기관 협력형 'GO!GO!GO! FAIR'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운영하며 광주 에너지 산업의 위상 제고와 기업 성장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RE100, 청록수소 세미나와 배터리 자문회의 등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소규모 행사도 병행하며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해 광주 지역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BM) 발굴과 맞춤형 자문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황정윤 연구원은 "정책 기획부터 협력 플랫폼 운영, 기업 지원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임해 왔다"며, "앞으로도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이 광주 에너지 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에너지 활성화 유공자 광주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한 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황정윤 연구원이 수상하고 있다.